

“육먹을 일인줄 몰랐나”

해인사 앞 동아골프장 계획 파장심각

해인골프장 문제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시점에서 10일 (주)동아스포츠가 해인사 진입로 부근 북두산 일대 26만7천여평에 또 하나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각계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동아골프장은 해인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총 27홀 규모다. 비록 해인골프장의 48만평에 비해 26만7천여평으로 규모는

작지만 거리상 가야산 일대 총 75만여평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더욱 충격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이 96년 9월 동아골프장 건설예정지역의 식물생태계를 계략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 예정지가 가야산국립공원과 불과 1.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야산 면적이 협소해 생태계 연결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각종생물의 피난처로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의 보고인 해인사 일대에 골프장 건설이 계속 추진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아골프장은 허가가 나다면 올 12월 착공해 200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합천군 가야면 송산정년회와 해인정년회 지역주민들이 ‘골프장조성 반대투쟁위원회(공동대표 황원석의 5인)’를 결성하고 식수오염 농작물피해 국립공원과 팔만대장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들어 허가 불허를 군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정 합천군수는 “접수된 동아골프장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 뒤 의견을 첨부하여 결정권이 있는 경남도에 이관하겠다”며 “합천군에서는 체육시설로서의 골프장 건설이 적합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곳을 검

가야산일대 75만평 환경 훼손위기 해인골프장 대법원 판결 ‘더욱관심’



◇지난해 해인골프장 건설반대의 여론이 교계를 비롯 환경단체 시민단체까지 확산됐다. 해인골프장 문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신선한 공기를 원하면서 동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맑은 물을 찾으면서 물을 오염시킨 뒤 자구책으로 정수기를 만들고 생수를 사먹는다.

오존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사람들은 자가용 끌고 삼림욕하러 간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공기오염의 주범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당장 편한것만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탄정치 삼독에 눈이 멀었다. 눈앞의 이익이 이익이 아님을 모르고 욕심껏, 제멋대로, 마구

은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에 의해 억압당해 왔다. ‘여성=자연’ ‘남성=문명’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가정에서 에코페미니즘은 출발한다. 결국 자연과 인간, 남성과 여성이 생성원리로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자는 이론이다.

보살사상, 화엄이론등 불교는 21세기의 화두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답이다.

목어

불교와 에코페미니즘

그것이 결국 자기파괴인줄 모른다. 안다해도 무명의 눈에 빠져 그 삶을 즐기느라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제 그 업이 쌓이고 쌓여 세상이 엉망이니 새로 시작하자는 대안론이 제시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생태여성론)이다.

에코페미니즘은 환경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의 만남이다. 지구환경의 위기와 여성의 억압구조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공동요인을 찾아 문제를 풀자는 이론이다. 자연은 인간에 의해 파괴되어 왔고 여성

어울림과 균형을 통한 생명화합, 性的 조화와 생명체 공생에 대해 이미 2천6백년전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일러 주셨다. 눈

밝은 학자들은 불교에서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지침을 찾고있다.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기치아래 조계종이 펼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에코페미니즘실천과 다르지 않다. 불교환경교역원이 에코페미니즘 이론전개에 앞장서고 있음도 반가운 일이다. 불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부처님가르침 실천과 전법에 나서자.

21세기 화두풀이의 답이 불교에 있기 때문이다.

육군 특수전학교 불교탄압 사건 일지

- ▲1997년 3월 2일 일요일 법회가 없는 날은 하교대장이 불자 하사관 후보생들을 무조건 교회로 인솔. 군복 장시용 대위 불자 하후생들에게 정신교육 실시.
- ▲3월 5일 일부 담직자들이 법당에 참석 한 하후생들을 교회로 오라고 지시.
- ▲3월 12일 일요일 법회가 있는 날에는 담직근무자들이 불자 하후생을 교회로 보낸(110기 불자 하후생 28명 전원 교회로 인솔)
- ▲5월 1일 법당 옆 7m 정도에 위치한 뒷밭에 분뇨차로 대량의 인분 살포. 능인선원 관계자 인분 살포현장 촬영.
- ▲5월 3일 박동진(특전사 군법사) 방문 현장 확인. => 원상복구된 상태였으나 냄새 진동.
- ▲5월 4일 일요일 법회 때까지도 냄새 진동. 하후생들 사실을 알고 격분.
- ▲6월 4일 수계식 때, 백여명의 하후생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70여명의 하후생들이 교회로 불려가 수계식에 참석 못함.
- ▲6월 9일 삼급부대인 특전사령부 군종참모 홍소령(군목사)은 홍성덕씨(능인선원 군포교당)에게 “왜 시끄럽게 만

드느냐”며 “법사도 옷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 ▲6월 11일 교계기자단의 인터뷰 요청에 육군본부 보도과에 절차를 밟지 않겠다며 인터뷰 거절
- ▲6월 12일 조계종 포교부장 원혜스님 방문, 하후생들의 증언 청취
- ▲6월 13일 교육사령부 이희완소령 교계기자단합동 회동 관계자 인사조치 방침 발표
- ▲6월 18일 - 조계종 포교원비웃 교계 17개단체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대책위’ 구성, 국방부장관 사과와 관계자 엄중문책 및 24일까지 성의있는 답변요구.
- 육군본부 박옥범 군종장, 국방부 박성대 군종실장 총무원 방문, 대책위원장 원혜스님에게 특수전학교 학교장 박희만 중령을 경고조치하고 하교대장 이진규소령과 특전사령부 장시용대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는 교육사령부 인사조치내용 밝히고 공식사과입장 전달.
- 불교탄압대책위는 국방부장관의 사과와 특수전학교 학교장 박희만중령 하교대장 이진규소령 진언조치및 군목사 장시용대위 경고조치요구.



◇육군본부 박옥범 군종장 국방부 박성대 군종실장은 18일 조계종 포교원을 방문하여 대책위원장 원혜스님에게 교육사령부 인사조치내용을 밝히고 공식사과입장 전달했다.

수련법회

뜻있는 사람이 불교를 키운다. ‘복지’를 지비실천의 가장 큰 덕목으로 삼는 스님. 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인들을 위해 교계 최초로 전용복지회관을 건립, 29일 개원하는 인덕노인복지회관 관장 성운스님(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심천사 주지)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덕노인복지회관 관장 성운스님

“복지불사는 생활수행”

—인덕노인복지회관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민간법인으로는 첫 노인복지회관이라 무엇보다 시설과 운영이 금금합니다.

▲삼각산과 북한산이 어우러지는 산자수려한 이곳 2천여평 대지에 지상3층 지하층으로 연건평 약 1천평의 복지회관을 세웠습니다. 특히 개관식을 가질 노인복지회관은 노후를 부처님 품안에서 보내는데 가장 절실한 것부터 갖췄지요. 법당 물리치료실 치과진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취미스포츠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특장이라면 주 대상에 살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이용토록하는 것과 일일 주간탁노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일반 부양가족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노인을 맡아 보호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밖에 단기보호사업으로 가정에서 부양이 어려운 노인을 15일 이내로 24시간 모시는 것과, 교양 취미 건강프로그램으로 마련한 노인학교를 운영합니다.

—교도소에 불신10만권 보내기등 재소자 교화활동도 20년가까이 해오셨는데, 이처럼 복지포교에 인력을 세우신 각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85년 총무원 사회부장 소임을 살면서 타종교의 복지선교활동을 시찰했던 일이있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적으로도 불교계에 비해 월등하지 않더라도 불교계에서 타종교시설을 이용할때 느낄 소외감과 이질감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비사상과 보시정신은 법당에서 논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자거리의 이웃들에게 가닿아야 합니다. 교행태가 바로 복지활동이지요.

—복지사업 가운데 왜 노인층에 관심을 두시는지...

▲우리 사회는 경제 급성장이 낳은 부산물로 경노효친사상이 희박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령인구는 증가해 UN이 정한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보효가 시급한 실정이지요. 어떤 분들은 실버산업업으로 조인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현실의 복지개념은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곳 은평구는 서울에서 가장 경제수준이 열악한 지역이며, 또한 관내에서도 이곳 진관동이 더하지요.

—삼천사 중창은 물론 은평구사암련회장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신바도 크셨는데요.

▲이번에 복지회관 불사가 원만한 회향된 것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곳에서 20여년을 살았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의 유대나 불교계와 각급 기관과의 원만한 관계는 은평구가 앞설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노인복지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아동복지사업으로 인덕어린이집을 설립 지난 3월 개원했습니다. 그밖에도 구립어린이집으로 개나리 수석 종합 배봉어린이집등 5개소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덕원은 <법화경>을 널리 법공양하시는 스님의 인력이 실전으로 꽃피고 있는 현상이라 여겨집니다. 그만큼 어려움도 크셨을텐데요.

▲어느 불사보다 주위의 동창이 따듯했습니다. 사실 8개월여 공사기간동안 조달해야하는 총예산이 30억원입니다. 부처님일이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가지요. 그럼에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사회에서 저야할 불교계의 몫이 바로 복지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찰이 있는 곳에 불상 범종이 모셔지듯 반드시 복지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이시대 ‘삼구보리 화해중생’은 이런 여건에서 실현됩니다. 인덕복지회관을 불을 지피는 불씨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 불교계에 복지포교의 뜨거운 관심과 후원이 불꽃이 일기를 바랍니다.

위영란 기자

“출가 4박 5일”

제27회 송광사 여름 수련법회 수련생 모집

지금으로부터 800여년전인 고려시대때부터 나라의 스승인 열여섯분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종찰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도량인 송광사에서 <출가 4박 5일>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된 자신을 찾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출가수행자의 생활로서 묵언과 참선, 발우공양 등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불교신자는 물론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소 힘이 들지는 모르나 맑고 충만한 산사의 기운과 정신을 얻을 수 있다면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피서지에서의 휴가보다 더욱 보람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1997년 여름수련법회 일정

차	기간	모집인원	신청기간	연령	대상
1차	1997년 6월29일-7월3일	100명	5월20일-6월10일	제한없음	불일회원
2차	7월 6일-7월10일	"	"	20세-60세	일반인
3차	7월13일-7월17일	"	"	"	"
4차	7월20일-7월24일	"	"	"	"
5차	7월27일-7월31일	"	"	"	"
6차	8월 3일-8월7일	"	"	"	"
7차	8월10일-8월13일	120명	"	중1 - 고3	불일학생회(중·고교)
8차	8월14일-8월17일	100명	"	20세-35세	불일청년회

◆ 7차 불일학생회와 8차 불일청년회의 일정은 3박 4일입니다.

- 문의처 : 전화/0661)755-0407,0109(오전 7시 - 오후 6시까지만 가능)전송/0661)755-0408
- 접수처(주소) :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여름수련법회 담당자 앞

■ 모집요강

① 신청대상

- 제 1 차 수련법회 (4박 5일) : 송광사 전국 불일회 회원
- 제2-6차 수련법회 (4박 5일) : 일반인
- 제 7 차 수련법회 (3박 4일) : 송광사 본·말사의 중·고등부 및 중·고등부 학생회원
- 제 8 차 수련법회 신청대상(3박 4일) : 송광사 본·말사의 청년회원 및 전국 불교 청년회원

● 지원봉사신청 지원대상 : 송광사 수련법회 참가경험이 있는 분으로 매 차수별 10명 내외

- 참가료 : 6월 25일까지 개별통보
- 등참금 : 1-6차(일반인수련회) : 7만원 (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 포함) 7차(중고등학생수련회) : 4만원 (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 포함) 8차(청소년수련회) : 5만원 (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 포함)

■ 신청서작성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없으며, 아래의 기재사항을 A4 용지에 빠짐 없이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FAX)로 신청

1. 이름 (한글) (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주소) (우편번호)	4. 직 업
5. 전화번호 (주택) (직장)	6. 종 교
7. 수련법회 경험 유·무 (있으면 참가년도 참가사항 기재)	8. 원하는 차수 (제 차 수련번호, 제 차 지원봉사)
9.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상세하게)	

* 팩스(FAX)로 신청하실때는 접수후 꼭 전화 확인바랍니다.

불기 2541년 5월 1일

송 광 사 주 지 현 고

대천불교조계종 제 21 교구본사